



간접적·분산적·평화적 시스템을 복제로 만든 신은 구조를 이어 넓어 장관한 노후는 형세와 풍토를 대한 창조자로써의 기운

천경재(泉鏡齋)

구름산 자리, 품은 샘마을 초입에 위치한 천경재(泉鏡齋)는 복잡한 도심에서 흔히 잊게 자연을 벗 삼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품은 집'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곳이다. 독특한 모양의 부지와 바탕으로 형성된 입체적인 예스들은 레이저 않으면서도 시선을 잡아끄는 묘한 매력이 있다.

에디터	전시현
사진	신경경
디자인 설계 및 시공	유주원, 유주원건축사사무소
인테리어	유주원건축사사무소
블록	주거시설
대지면적	327.77坪
연면적	294.04坪
건축면적	152.02坪
위치	서울시 강서구 내곡동 1-3085 유주원건축사사무소(jyuna.com)
자료제공	



자연의 너럭함을 품은 집

이 집은 북쪽으로 향한 수리와 연결해 있고, 남쪽에는 인동산과 청계 산이 자리해 서울에서는 보기 드문 수려한 경관을 자랑한다. 그러나 전 면도로와 3m 단차가 있고, 구릉산 꽁꽁 구획 설정에 따라 일부가 살며 끝 비정형적 대지와 삶에 앞서 디자이너에게 많은 고심거리가 됐다. 결국 이 같은 상황적 특성과 외부 조건을 고려해 'ㄷ'자 형태로 배치된 천경재는 가운데 수공간을 품은 득특한 뷰를 갖추게 됐다. 좌우로 펼친 베스트리 분들은 주변과의 위생감을 최소화하고, 안정화 인 내부 분위기를 유도한다. 디자이너는 집 서쪽의 예스를 들어 올려 구옥의 주차장을 그대로 활용하고, 동시에 하부를 통해 출입하는 누하 진입 양식을 적용했다. 1층 베스트리 벌어진 끝은 자칫 폐쇄해 보일 수 있었던 진입로를 밖으로 유연한 공간으로 거듭나게 하는데, 이곳의 계단을 지나면 빌미로 볼 수 있는 한데 마당과 옆산의 풍경은 감탄을 자아 내기에 충분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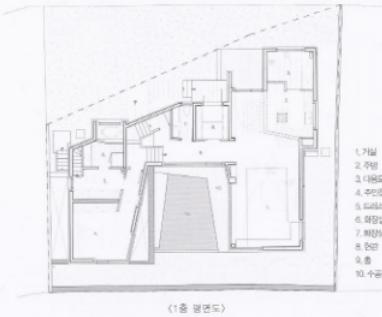
현관에서 거실로 들어서면, 재를 좋은 창밖으로 갈 기워진 중정과 인동 산이 한눈에 들어온다. 복주한 도시 생활에서 잊기 쉬운으로 밀려난 자연을 클라이언트에게 들려주고자 했던 디자이너의 의도에 따라 수공간과 면한 천상과 거실, 혹은 수면을 봄에 빛과 벼랑을 인식하게 만들었다.

또한, 거실과 서방, 주방이 하나의 통신으로 이루어져도록 하고, 식당과 빛마당 사이에 대드로 두어 외부와의 소통에도 초점을 맞췄다. 거실의 천장은 목재로 만들어진 구조로 조명과 냉난방, 계습 시스템을 배열해 깔끔하면서도 특색 있는 분위기를 연출했고, 벽체에는 오크원목과 노출콘크리트, 체장벽을 등 다양한 외부 재료들을 활용해 다양화된 느낌을 준다.

남동향으로 창을 내 주침실은 차지만 밝고 아름다운 전망을 자랑한다. 시원하게 펼친 개구부는 외부의 자연을 내부로 인입하며, 반대편 벽은 대와 그림 벽으로 풍랑적 이미지를 구현했다. 침의 모든 부분에 균·원 경의 아름다움을 네비히 닦아 안락하고 풍성한 공간을 구축한 천경재, 자연과 사람, 그리고 공간의 상호소통을 유도했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할 가치가 있는 집이다. ■

1. 거실, 서방은 주법을 하나의 공간으로 볼 수 있도록 분단하게 들여놓고, 각각으로 사용된 벽재의 역할을 다시 벽면에 통일하여 운화하고 통일한 실내 공간을 만들었다.

2. 3. 집의 바닥을 풀고 배 둘어오도록 한 누한진인 복식은 인장감과
다방이 전입된 반복면에 위치한 드라마의 시스템의 동선이 서로
로 융여한다. 1층 레스에 일어진 들판 두어 넓고 폭넓은 느낌을
이ields.



4. 현대를 수끌거리에서 시작진 공간은 집안을 편안하게 하고 넓임을
제공해 줄여준다. 또한 아래에서 번사된 빛은 거실 천장에 드는 빛을
그리고 그 고즈넉한 분위기로 구현하는 효과를 냈다.



6, 7. 002 난간대와 다양한 주·보조조명이 인상적인 계단
청문 내부로 외부 자연을 쉽게 접할 수 있다.



